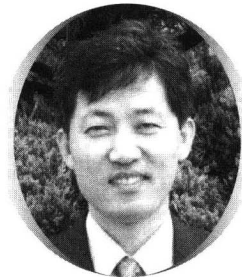




## 산업의학과 의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 성 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장

의과대학 시절 담임교수이었던 미생물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임상의학을 하지 않고 왜 기초의학을 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이 생각난다. 임상 의사는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지만 기초의학의사는 수 만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산업의학도 공중보건학의 일부라면 한 사람의 환자보다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의 눈에도 산업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임상 의사보다는 더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끔 '왜 임상의학을 하지 않고 산업의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아마도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직업 중의 하나인 의사이면서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더 확실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만 항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다.

대학을 마치고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였을 때는 의사는 정말 이러한 상이어야 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가정의학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남달리 만족감을 가지고 수련과정을 지냈다. 전공의와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취업이나 개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 가정의학과 지도교수께서 산업의학을 해 보도록 권

유한 것이 산업의학을 하게 된 계기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과 같은 높은 뜻을 가지고 산업의학을 시작한 많은 동료와 달리 본인은 부끄럽게도 우연에 의해 산업의학을 시작하게 된 것

이다. 선택은 우연이었지만 산업의학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본인의 의학적 지식이나 소신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의학과 의사는 사업장 내의 건강문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강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생각은 본인을 공중보건의 기본 원칙에 소홀히 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병 진단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하였다. 내부에서는 연구원에서 연구는 하지 않고 지나치게 직업병 진단에 집착한다는 비난도 들었고 외부에서는 연구원에서 직업병 조사를 독점한다는 비난도 들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처음 직업병 진단을 시작할 때는 아무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기존의 산업보건 체계에서는 건강진단에 만족하였고 거기까지가 예방의학을 하는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이었다. 반면에 임상 의사는

질병 진단과 치료는 하지만 그것이 왜 생겼는지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태도이었다. 연구원의 직업병 진단은 이러한 두 전문분야의 인식의 틈새를 채우는 역할을 하였다. 연구원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비용 지원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 직업병 심의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에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더라도 동시대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까지는 가야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생각은 정책적인 결정이나 공공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수한 산업의학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제 몫을 해 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의학은 건강진단을 하는 과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산업 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조차도 건강진단이 산업의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의학 전문의들이 건강진단 업무를 하고 있고, 대학병원의 교수들조차도 건강진단 업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니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산업의학의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산업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업환경 개선이나 작업조건의 관리를 통해 근로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공정과 유해물질 그리고 작업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강관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진단은 이 과정에서 중 하나의 업무인 것이다.

사업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의 의사가 제한된 항목으로 일 년에 한 번하는 건강진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보건관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는 매우 어렵다. 건강한 사람에 대해 정해진 항목만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의사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건강진단만을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라는 고급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일 것이다.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건강진단 자료와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학 전문의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존재 가치를 보여주어야 가능한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로 인한 재해나 직업병을 치료해 주는 것에 만족하였지만 이제는 개인 질병이라도 작업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한 삶 자체를 요구할 것이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사업주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급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근로자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의학과 의사들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깝게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직업병이 발생하면 제대로 발견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건강한 근로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